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한이형 라우렌시오 (1798-1846)



충청도 덕산(德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한이형은 14세 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21세 때 혼인한 뒤 경기도 양지(陽智) 은이 마을로 이사하였는데, 정직하고 헌신적인 성격과 뛰어난 덕행,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1846년 7월 말, 한이형은 포졸들이 은이 마을을 습격할 거라는 소문을 듣고 가족을 모두 피신시킨 뒤 혼자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때 이미 상처투성이여서 포졸들이 말에 태워 가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백리가 넘는 길을 맨발로 걸어서 갔다. 포청에서 심한 형벌을 이겨 낸 그는 마침내 9월 20일, 곤장 70대를 맞은 뒤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성화_박재웅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6주일 · 농민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54(53), 6, 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예레 23, 1-6

화답송

시편 23(22), 1-3 7, 3 4-5, 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 2, 13-18

복음 환호송

요한 10, 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르 6, 30-34

영성체송

시편 111(110), 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



이스라엘의 밀밭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로 규정한 축제는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입니다(탈출 23,14-17). 이 셋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탈출의 기적을 기념하지만, 이스라엘 기후와 직결되는 농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고, 우기는 가을부터 시작해 겨울에 장마로 접어들습니다. 아가 2,11에도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건헸다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기후를 짐작하게 해주는 또 다른 대목은 신명 11,10-14인데요, 여기서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이 적셔주는 곳”(11절)으로 소개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 수로를 설치해 인공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은 온전히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코헬 3,1) 있는 법! 비가 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는 비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내리면 곡식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1사무 12,17). 보리 수확철인 파스카와 밀 수확철인 주간절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런 재앙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제때 내리는 비가 중요한데, 신명 11,13-14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만 주

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나안은 이집트보다 못한 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단련 받는 과정은 광야 방랑기로써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제때 내리는 비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신명 11,14)가 언급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가 “이른 비”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성서력으로 일곱째 달, 우리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인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 내리는 이 첫 비는 건기 동안 굳은 토양을 적셔 농부들의 파종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즈음 지내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 방랑기 동안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산데서 기원한 명절입니다(레위 23,43). “늦은 비”는 3~4월에 내리는 ‘봄비’인데, 이 비가 내린 뒤 건기가 시작되므로 그 해의 ‘마지막 비’라는 뜻입니다. 이즈음에는 파스카를 지내며 보리 수확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우기의 시작과 끝에 지내는 초막절과 파스카가 한 해의 두 축을 이루며, 십계명 받은 일을 기념하는 주간절이 건기에 들어가 두 명절을 이어줍니다.

이 세 명절이 제정된 이유는, 이집트 탈출을 경험한 세대는 주님의 계명을 비교적 쉽게 지킬 수 있었던 반면, 그 후손들은 과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머리로만 알 뿐 실제 체험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을 제정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농사 절기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일상에서 쉽게 체험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⑨ - 재산(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교회의 사회교리가 성찰한 ‘지상 재화의 보편(공동) 목적의 원리’를 국가, 영토, 자연·사회적 자원에도 적용합니다. 국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영토, 자원은 보편(공동) 목적, 달리 말해 다른 나라와 그 국민의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 나라는 이 땅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부여하신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기본적 권리들은 사회의 어떤 구조보다도 선행합니다.

이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 교류에 관하여 대안의 이해 방식을 전제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과 함께 ‘이웃’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발전에도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개인과 국가의 실질적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른바 ‘영세기업’은 여러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품위 있는 생활과 온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 조건’(적정 임금이나 휴식)을 제한하는 외부 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업의 경영자인 한 국민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게만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영자들의 ‘연합’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사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를 환대할 수 있는 방식은 많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은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민(移民)들은 자신이 정착한 나라를 착취하거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의 생활 조건을 개선(改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라 차원에서든 국민 차원에서든 이기적인 소비주의 생활양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 국민의 품위 있는 발전을 방해하는 부패한 사회체제를 타파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나라의 전반적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이 범한 인류 역사의 부끄러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일본의 제국주의도 ‘대동아공영(共榮)’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다른 많은 국가와 국민들의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의 기회를 빼앗고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역사의 상처를 극복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더 발전된 지역(수도권과 그 시민) 역시 덜 발전된 지역(비수도권과 그 시민)에 그 온전한 ‘발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

덮는다고 덮어질까요?

김치냉장고 위, 보자기가 눈에 띄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오늘에서야 말이죠. 걱정하고 보자기를 치웠습니다. 켜켜이 쌓아놓은 진료 영수증과 팜플렛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넣어두긴 애매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생각에서 그리 밀쳐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놓다 보니 미관상 지저분하고 누가 와서 볼까 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친김에 치우면 좋았으련만 예쁜 보자기를 꺼내다 덮어버렸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물건이 안 보이니 나름 성공한 방법 같았습니다.

방송작가로 분주하게 살 땐 집안일 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후배 작가의 집에 갔는데 거실과 주방 곳곳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옷장 서랍까지 나와 있었고, 그 위를 흰 천으로 가려놓았더군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온다니 치울 시간은 없고 놔두자니 자기 집 민낯이 드러날 것 같아서 급조한 아이디어랍니다. 기가 막힌 광경이지만 흥을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배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보자기만 보면 고이 접어 보관했다가 뭔가를 숨기고 덮을 때 사용했으니 말이죠.

그 후배와 저는 왜 눈에 거슬리거나 보기 싫은 것들을 숨기고 덮어야만 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봐 주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뭔가 잘하거나 옳은 일을 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다. 반대로, 방을 치우지 않고 책가방 정리를 안 하면 부모님께 야단맞았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면 선생님께 된통 혼났습니다.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 않으면,

○○을 못하면' 영락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의 못생긴 부분과 부족함, 단점과 결함 역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또 다른 일부였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부족함과 결점에도 너그럽지 못하고, 생긴 그대로의 민낯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는 각자의 한계를 존중하지 못하고, 남 보기에 좋고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일 것입니다.

김치냉장고 위에 쌓아놓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더 근사하게 포장해서 있어 보이게 한 보자기는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내 눈에 좀 거슬리면 어떤가요. 남들이 보면 또 어때서요. 나약한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그게 욕심 아닐까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거라면, 세상에 보자기는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나 자신이든 남이든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좀 봐주고 '그래, 이런 면도 있었네.'라고 이해하면서 보자기가 아닌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화 데레사 성녀는 나와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는 마음이 곧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은 당신의 이웃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나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리지외의 성녀 야기 예수의 데레사께 드리는 9일 기도」, 다섯째 날 <겸손>).



교구 소식

제29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및 직거래 장터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되새기고, 여기에 동참하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합니다.

일시 7/21(주일) 11시 [직거래 장터 09시~14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31-850-1491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청소년사목국 통합 카카오톡채널 오픈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로 초대합니다.

오픈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 기존 UJB어린이사목부·UJB청소년사목부·UJB청년사목부 채널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채널 ▶



제32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안내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3(금) 19시 ~ 25(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가정기도 <감사> 제4기 신청

30~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90일 기도 프로그램

기간 8/3(토)~10/31(목) [90일]

대상 30~40대 기혼자 (부부 또는 개인)

회비 1만원 (가정기도 감사 노트 제공)

접수 7/21(주일)까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전시] 정지후 헬레나의 9살 여행

일시 7/27(토)~8/9(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톡 @g_pyeongwha

전신자 성경 읽기 7/21(주일)~27(토) : 루카 16,19-17,10



7/27(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농민 주일

제29회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기도회 월 피정

일시: 7/26(금) 13시~16: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서울대교구)
문의: 010-3790-0496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김종국 신부, 7/23 이상기 가브리엘
문의: 010-5514-4077 회장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일시: 7/27(토) 14시 ~ 28(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김완식 요셉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피정:
8/3(토), 이한택 주교
파티마 성모님의 날 기도회 미사: 8/13(화) [매달 13일]
최로사리아 수녀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매주(목) 기도 피정: 이한택 주교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8/7(수)~11(주일), 8/19(월)~23(목) [4박5일]
예수마음기도: 8/19(월)~27(화) [8박9일]
이나시오영신수련: 8/19(월)~27(화) [8박9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학교

일시: 8/13(화)~18(주일)
장소: 수원양지영성교육원
대상: 가톨릭신자 (예비신자 가능)
문의: 010-5531-1008, ICPE카톡플친

의정부교구 성령채신 금요일기도회 안내

일시: 7/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종용 신부 (수원교구 비봉성당)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7/22(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정병덕 라파엘 신부 (인천교구)
문의: 010-8917-0090

힐데가르트 성녀의 영성 - 심화

일시: 9/21(토) 15시 ~ 22(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사: 서 엠마누엘 수녀
회비: 8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바오로가족협력자회 - 레벤복스 명동성지피정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 피정
일시: 8/20(화) 11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내용: 강의, 점심식사, 순례기도, 레크레이션, 미사
강사: 양은철 안드레아 신부, 이해동 라파엘 신부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복스 회원
준비물: 목주, 바오로가족 기도서 / 회비 없음
문의: 02-944-8421, 010-9752-8421
바오로가족협력자회
010-2557-1361 레벤복스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생태순례: 9/1(주일)~3(화), 9/20(금)~22(주일)
우도포함: 8/14(수)~17(토), 8/21(수)~23(금)
추자도포함: 9/7(토)~10(화), 10/7(월)~10(목)
11/3(주일)~6(수)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8/2(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목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일(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7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7/25(목) 11시 (매월 넷째 목요일)
대상: 민족화해 후원회원, 평화사도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교육 · 모집 ▶▶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장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 채용

분야: 생활재활교사(여) ○명, 채용시까지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031-965-0028 해밀
※ 자세한 사항은 www.haemil.or.kr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영꽃 체화무단 모집

활동: 교도소 위문, 요양원 위문
전공: 전례무, 찬양무, 정화무
대상: 초급, 중급 (30세~60세)
장소: 주엽동 성당
문의: 010-4972-5359 한로사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내용: 마리아론과 33일 봉헌 기도 (6개월)
<대면반> 9/3~2/16,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Zoom반> 9/5~2/16,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안내 · 기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우도해변포함: 8/24(토)~26(월)
추자도포함: 9/11(수)~14(토), 10/5(토)~8(화),
10/27(주일)~30(수)
자연순례: 9/2(월)~4(목), 10/1(화)~3(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7/27(토)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연락)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3일

출발: 9/19(목) / 비용: 599만원 (+2,0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1(수)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45만원)

9/23(월) 11/18(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10/22(화)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11/4(월) 동유럽 (11일, 495만원)

11/18(월)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449만원)

2025년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7(월) 동유럽, 발칸, 메추고리에 (13일)

10/16(수)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1일)

10/21(월) 산티아고 118km 도보 순례 (12일)

11/21(목)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12/20(금) 이탈리아 일주 (10일, 정기 희년 전대사)

문의: 02-319-2533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 자세한 사항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성지순례 &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

8/24(토)~26(월) 대구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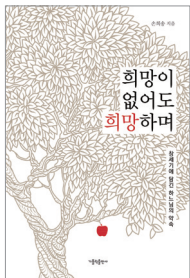
9/21(토)~22(주일) 김수환추기경군위생가와 용인묘지

출발: 서울 명동

문의: 010-3807-1784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의 도서 소개****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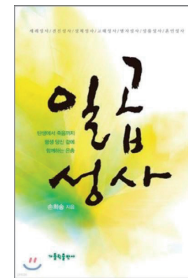
손희송 지음
가톨릭출판사
240면
16,000원
02-6365-1864

세상과 인간의 창조, 첫 인간과 낙원,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등 창세기의 이야기를 '희망'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

**마르코복음
기쁨의 문을 열다**

손희송 지음
생활성서사
240면
14,000원
02-945-3300

마르코 복음서의 주요 메시지를 신학적 토대 위에 다양한 일화와 묵상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준다.

**일곱 성사**

탄생에서 죽음까지
평생 당신 곁에
함께하는 은총

손희송 지음
가톨릭출판사, 224면
16,000원
02-6365-1864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톨릭의 일곱 성사를 소개한다.

**칠성사
믿음의 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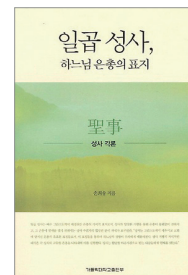
손희송 지음
생활성서사
224면
13,000원
02-945-3300

칠성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각 성사들의 역사와 발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칠성사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성사,
하느님 현존의 표지**

손희송 지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64면
10,000원
02-740-9718

가톨릭의 성사에 대한 인간학적 기반과 성서적 근거, 교회 역사 안에서 성사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성사 일반론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지를 다룬다.

**일곱 성사,
하느님 은총의 표지**

손희송 지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418면
18,000원
02-740-9718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살펴본 후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종합한다.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누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 암브로시오, 성 에프렐, 성 대 알베르토 그리고 많은 저술가와 교부들은 ‘전승’을 바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드러내신 분은 성모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요한 20,11-18).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가운데 하나로서, 주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신 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에 관해 전하는 복음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입은 뒤,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일행을 시종함(루카 8,1-3).
- 갈릴래아 부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봄(마태 27,55-56.61; 요한 19,25).
- 빈 무덤을 확인한 뒤, 발현하신 예수님을 만남(마태 28,1-10; 마르 16,1-11; 요한 20,1-18).

한편,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04년 재위)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복음 구절에 나오는 여인들과 동일 인물로 간주하였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요한 7,53-8,11),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루카 7,36-50),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루카 10,38-42),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요한 12,1-8)가 그들입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마리아 막달레나의 초상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성경 연구를 통해 근거 없는 결론으로 밝혀졌고, 1969년엔 특히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의 연관성은 오해였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일, 교황청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을 ‘축일’로 격상하는 교령 「사도들의 사도」(Apostolorum Apostola)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사도”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복음 선포자’라는 의미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4/1225~1274년)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여한 호칭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당신의 부활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요한 20,17-18). 교령 「사도들의 사도」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진정한 복음화의 일꾼, 곧 부활의 핵심적인 기쁜 메시지를 알리는 복음 선포자의 모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녀의 역할과 지위는 축일 감사송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사랑하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뵈었으며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찾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동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어 사도들 앞에서 사도 직무의 영예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2일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